

양대 광섬유 기업, AI 수요로 잠정 실적 호조세 기록



Hana China Weekly | 2026.7.17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장비광섬(601869.CH): 1H26 잠정 실적 호조,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은 상황

- 1H26 장비광섬(601869.CH) 잠정순이익은 YoY +711~914% 증가. 중천과기(600522.CH)(YoY +57%)를 크게 상회. 두 회사 모두 7/14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7/15 주가는 장비광섬 +6%, 중천과기 -4% 기록.
- 두 회사 모두 광섬유 업체지만 순이익 증가율 격차는 컸음. 장비광섬은 프리폼-광섬유-광케이블 중심의 순수 광통신 업체인 반면, 중천과기의 광통신 매출 비중은 14%에 불과하기 때문. 2025년 기준 장비광섬의 매출 비중은 광전송 제품 59%, 광인터커넥트 부품 22%. 광전송 제품 마진율은 2024년 32%에서 2025년 36%, 광인터커넥트 부품은 29%에서 40%까지 상승. 전사 매출총이익률은 1Q26 41.5%(YoY +13.7%p), 순이익률은 13.4%(YoY +8.2%p)까지 개선.

중천과기(600522.CH): 2Q26 잠정 실적 호조 확인

- 중천과기의 2Q26 잠정 순이익은 14~16억위안으로 YoY +52~68%, 순이익 증가율은 1Q26(YoY +46%) 대비 가속화. AI 연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광섬유-광케이블 산업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중천과기 광섬유의 판매량과 ASP가 동반 개선 중이기 때문. 중천과기의 제품 Mix는 고마진 특수 광섬유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G652D 매출 비중은 기존 약 50%에서 4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 광섬유 사업부 GPM은 1Q26 약 30%(2025년 23%)까지 상승했고 2Q26에도 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올해부터 AI 데이터센터향 고부가가치 광섬유 수요가 실적에 반영될 것. 올해 6월 중천과기는 중국 AIDC 고객과 15억위안 규모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 해당 프로젝트는 고사양 광섬유인 G657A1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일반 통신망 프로젝트 대비 평균판매단가(ASP)와 수익성이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

CXMT(688825.SH): 기본 공모금액 대비 2배 확대, 최대 15조원 규모 자금조달 예상

- 7/14 로이터에 따르면 CXMT가 7월 27일 월요일에 정식 상장할 것으로 예상. 14일 공개된 발행공고에서 확정된 발행가는 주당 8.66위안(시장 예상치 4.4위안의 2배 수준), 기본 공모금액은 579억위안으로 당초 목표(295억위안) 대비 2배 확대됐다고 공시. 초과 배정 옵션(그린슈) 행사 시 공모 규모는 최대 666억위안(한화 약 14.6조원)까지 확대 가능.
- 수요예측 결과 333개 기관 투자자 관리 1.15만개 배정 대상이 참여, 희망 공모가 범위는 7.26위안~65.19위안, 총 주문 물량은 1조 2,860억주로 기관 배정 물량의 460배 이상에 달했음.
- 상장 후 시가총액은 5,792억위안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1조위안 수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공모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 다만 조달 금액은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CXMT는 특별 공고를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당부.

반도체

CXMT(688825.SH): 기본 공모금액 2배 확대, 최대 15조원 규모 자금조달 예상

- 7/14 로이터에 따르면 CXMT가 7월 27일 월요일에 정식 상장할 것으로 예상. 14일 공개된 발행공고에서 확정된 발행가는 주당 8.66위안(시장 예상치 4.4위안의 2배 수준), 기본 공모금액은 579억위안으로 당초 목표(295억위안) 대비 2배 확대됐다고 공시. 초과 배정 옵션(그린슈) 행사 시 공모 규모는 최대 666억위안(한화 약 14.6조원)까지 확대 가능.
- 수요예측 결과 333개 기관 투자자 관리 1.15만개 배정 대상이 참여, 희망 공모가 범위는 7.26위안~65.19위안, 총 주문 물량은 1조 2,860억주로 기관 배정 물량의 460배 이상에 달했음.
- 상장 후 시가총액은 5,792억위안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1조위안 수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공모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 다만 조달 금액은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CXMT는 특별 공고를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당부.

반도체: 일부 중국기업,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허가 취득

- 7/14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ZTE 산하 ZTE Kangxun-서버 제조사 Maginfra가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허가를 취득했으며, 킹소프트 클라우드 산하 법인은 H200급 AMD 칩 사용 허가를 각각 취득. 트럼프 행정부가 H200 대중 수출 허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 7/15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케슬러 상무부 차관은 "실제 선적은 극히 소량"이라고 증언하며 정책 신호이지 실질 물량 이벤트는 아님을 명시. 다만 국산 GPU 업체들의 핵심 고객인 중국 빅테크가 H200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산 GPU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7/15 GPU 테마 -6.5% 급락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

기가디바이스(3986.HK):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셀온뉴스 확산

- 7/9 공시에 따르면 2Q26 잠정 매출액은 73억위안(YoY +226%)으로 컨센서스를 46% 상회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54억위안(YoY +1,496%)으로 컨센서스를 77% 상회. 실적 호조에 불구하고 7/10 기가디바이스 주가는 21.1% 급락하며 셀온뉴스(Sell on News) 심리가 확산. 6/29 야간 리스크 공시(메모리 가격 추가 대폭 상승은 지속 불가능) 이후에도 +9.1% 급등하며 A주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으로, 이번 H주 급락은 호실적 발표 후 고점 차익 실현 물량이 일시에 출회되는 전형적인 셀온뉴스 패턴으로 해석됨.

YMTC(비상장): 1차 IPO 지도 진행 보고서 공개

- 7/10 CSRC 관할 증감회 관할 후베이 증감국이 YMTC의 1차 IPO 지도 진행 보고서를 공개. 정식 IPO 신청 전 사전 정비 단계로 YMTC가 실제로 IPO를 위한 첫 절차를 시작한 것. 향후 여러 차례 진행 보고서 제출 이후 검수 과정을 거쳐 IPO 신청서 제출이 필요. YMTC는 2016년 7월 설립, 중국 유일의 3D NAND Flash 전공정 IDM 기업으로 2025년 말 글로벌 NAND 시장점유율 11%(글로벌 6위)를 차지하는 기업.

일루타코어엑스(9903.HK): 신주 기관 배정 완료, 자금 조달 우려 일부 해소

- 7/13 주당 476홍콩달러에 1,485.7만주의 기관 배정을 완료해 약 70.3억홍콩달러를 조달. 대규모 자금조달 완료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조달 금액의 60%를 메모리·웨이퍼 등 핵심 부품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 알려지며 AI 가속기 수요 확대 및 공급망 선점 기대 부각되며 강세.

이차전지

강봉리튬(1772.HK): 강봉리튬 1H26 흑자전환

- 7/14 강봉리튬 1H26 잠정순이익은 36.5~46억위안으로 1H25 순손실 5.31억위안에서 흑자전환. 리튬염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과 리튬 자원 프로젝트 증설에 따른 원가 개선, ESS 시장 성장에 따른 리튬배터리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 또한 PLS Group 지분 일부 매각에 따른 투자이익도 순이익 증가에 기여.

산업재

사원전기(002028.CH): 2Q26 잠정 매출 블룸버그 컨센서스 하회

- 7/10 사원전기 2Q26 잠정 매출은 62억위안으로 YoY +18% 증가, 잠정 순이익은 9억위안으로 YoY +11% 증가하며 블룸버그 컨센서스(매출 YoY +28%) 하회. 2Q25(매출/순이익 YoY +50%/+62%)의 높은 베이스 부담으로 2Q26 매출/순이익 성장률은 모두 1Q26 대비 둔화. 순이익 부진은 달러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환차손 확대에 기인.

양광전력(300274.CH): 고체 변압기 SST 신제품 출시

- 7/9 양광전력은 데이터센터 전용 고체 변압기인 SST 신제품 "EnerNeo" 공식 출시. 이번 신제품 발표 행사에는 NVIDIA, Amazon, Microsoft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됨. EnerNeo는 10~13.8kV 교류(AC)를 800V 직류(DC)로 변환하며, 모듈당 1.5MW의 출력을 제공. 또한, 기존 대비 전력설비 설치 공간과 구축 기간을 50% 절감하고 최대 효율은 98.5%에 달함. 경영진은 기존 인버터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조했으며 행사 현장에서 광둥 HEC Tech(600673.CH), Zhonglida Data(비상장)와 프레임워크 구매 계약을 체결. 다만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 분야의 경험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점은 향후 사업 확대의 과제로 지적됨. 경영진은 미국 기준 SST 시제품은 1Q27 출시, 양산은 2Q/3Q27, 상용화는 2027년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6/30 보도된 미국 규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지난해에도 유사한 규제안이 추진됐으나 상무부에서 보류된 사례가 있으며, 시행되더라도 규정 마련과 업계 적용까지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양광전력의 2026년 미국향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 비중은 약 10% 초중반으로 추정됨. 또한 Safe Harbor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는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반면, 2028년 이후는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 양광전력은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및 ESS 선도기업에서 AI 통합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중. 현재 추가에는 AIDC용 ESS와 SST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장비광섬(601869.CH): 1H26 잠정실적 호조,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음

- 1H26 장비광섬(601869.CH) 잠정순이익은 YoY +711~914% 증가. 중천과기(600522.CH)(YoY +57%)를 크게 상회. 두 회사 모두 7/14 잠정실적 발표했고, 7/15 주가는 장비광섬 +6%, 중천과기 -4% 기록.
- 두 회사 모두 광섬유 업체지만 순이익 증가율 격차는 컸음. 장비광섬은 프리폼-광섬유-광케이블 중심의 순수 광통신 업체인 반면, 중천과기의 광통신 매출 비중은 14%에 불과하기 때문. 2025년 기준 장비광섬의 매출 비중은 광전송 제품 59%, 광인터커넥트 부품 22%. 광전송 제품 마진율은 2024년 32%에서 2025년 36%, 광인터커넥트 부품은 29%에서 40%까지 상승. 전사 매출총이익률은 1Q26 41.5%(YoY +13.7%p), 순이익률은 13.4%(YoY +8.2%p)까지 개선.
- 반면 중천과기 매출은 전력망 사업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광통신은 14% 수준. 2025년 광통신 사업 매출은 73.7억 위안으로 YoY -9.0% 감소. 이는 2025년 상반기 국내 통신사 광섬유-광케이블 공동구매 입찰가격 하락으로 ASP가 하락한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 전사 매출총이익률은 1Q25 15.6%(YoY +1.0%p), 순이익률은 7.0%(YoY +0.6%p)로 개선 폭도 제한적이었음. 광통신 사업 마진율 역시 2024년 25.1%에서 2025년 22.6%로 하락. 수익성이 낮은 기존 통신시장용 광섬유-광케이블 비중이 여전히 높았던 반면,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제품은 아직 의미 있는 매출 규모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 400G 광모듈은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800G 광모듈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전망.
- 최근 장비광섬 주가 약세는 Han's Laser 등 신규 업체의 증설 계획 발표와 광섬유 가격 상승세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 여기에 2Q26 실적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 다만 광섬유 업체들은 지난 공급과잉 사이클을 경험한 이후 증설에 매우 신중한 모습. 신규 증설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수요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려는 기조가 강함.
- 장비광섬 주가는 12MF P/E 59배에서 거래 중으로 중천과기 20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음. 골드만삭스는 장비광섬에 Neutral 의견 유지. AI 데이터센터용 수요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정 수준으로 평가. 모건스탠리는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했지만 A주가 H주 대비 높은 프리미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Underweight 의견 유지.
- 광섬유 가격 상승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 중천과기 경영진은 광섬유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증설이 본격화되는 2027~2028년부터 광섬유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2028년 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천과기(600522.CH): 2Q26 잠정실적 호조 확인

- 중천과기의 2Q26 잠정순이익은 14~16억위안으로 YoY +52~68%, 순이익 증가율은 1Q26(YoY +46%) 대비 가속화. AI 연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광섬유-광케이블 산업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중천과기 광섬유의 판매량과 ASP가 동반 개선 중이기 때문. 중천과기의 제품 Mix는 고마진 특수 광섬유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G652D 매출 비중은 기존 약 50%에서 4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 광섬유 사업부 GPM은 1Q26 약 30%(2025년 23%)까지 상승했고 2Q26에도 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올해부터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가치 광섬유 수요가 실적에 반영될 것. 올해 6월 중천과기는 중국 AIDC 고객과 15억위안 규모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 이는 2025년 연간 매출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 해당 프로젝트는 고사양 광섬유인 G657A1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일반 통신망 프로젝트 대비 평균판매단가(ASP)와 수익성이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
- 중천과기는 프리폼-광섬유-광케이블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공급망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음. 경영진은 광섬유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되고 가격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향후 미국 CSP 고객사에 직접 공급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중천과기의 하반기 순이익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순이익은 YoY +15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중천과기가 현재 12MF P/E 2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

전기차

BYD(1211.HK): 아부다비 에너지 기업 Masdar와 ESS 공급 계약 체결

- 7/10 BYD는 아부다비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sdar)와 11GWh 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 12.5GWh 계통연계(Grid-side) ESS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중동 시장에서 확보한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BYD는 이번 프로젝트에 자사의 Haohan ESS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GC Master EMS를 공급할 예정.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ESS를 결합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 상업 운전 이후에는 세계 최초로 GW급 기저부하(Base-load)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

샤오펑(XPEV.US): 독일에서 VLA 테스트 완료, 유럽 ADAS 출시 계획

- 7/14 샤오펑은 독일에서 VLA(Vision-Language-Action) 2.0 모델의 현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2027년부터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ADAS를 출시할 계획. 이번 테스트는 샤오펑이 유럽에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니오(NIO.US): 신규 AI 컴퓨팅 칩 공개

- 7/14 니오의 반도체 자회사 Shenji(GeniTech)가 신규 AI 컴퓨팅 칩 NX9031U를 공개. Shenji NX9031U는 5nm 차량용 AI 컴퓨팅 칩으로 최대 800TOPS의 연산 성능을 제공. 니오는 7/17 상하이 WAIC에서 해당 칩을 기반으로 한 '전 영역·전 시나리오 대규모 AI 모델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 이는 휴머노이드, AI 컴퓨팅, 첨단 제조 등을 겨냥한 플래그십 플랫폼으로, 니오는 스마트카용 컴퓨팅 플랫폼을 범용 AI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으며 자체 반도체 기술 또한 차량용 자율주행을 넘어 휴머노이드와 AI 에이전트 추론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중.
- 니오는 2023년 12월 Shenji NX9031을 공개했으며, 현재 니오와 온보(Onvo) 브랜드의 모든 차량에 해당 칩을 적용 중. Shenji NX9031은 자동차용 5nm 공정으로 제조된 업계 최초의 ADAS 칩으로, 5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으며 자동차용 SoC 가운데 최고 수준의 AI 추론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니오는 기존에 NX9031 1개가 엔비디아 Orin 칩 4개와 동등한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리빈 CEO는 NX9031 개발에 수십억 위안의 R&D 비용이 투입됐으며, 이는 배터리 교환소 약 1,500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언급. 니오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했으며, 2월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22.6억 위안의 투자를 받음. 투자 후 Shenji의 기업가치는 약 82.7억 위안으로 평가됐으며, 투자 이후에도 니오 자회사가 **62.7%**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음.

니오(NIO.US): CXMT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메모리 반도체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 7/14 보도에 따르면, 니오가 CXMT IPO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1.6억위안을 투자. 니오 자회사(Nio Power Technology)가 1,824만 주(공모물량의 0.27%)를 배정받았으며, 의무보유 기간은 18개월. 니오와 CXMT는 차량용 DRAM(LPDDR4X-LPDDR5X)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 이를 통해 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에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 CXMT의 전략적 투자자에는 니오 외에도 샤오미, 알리바바 클라우드, 체리자동차, ZTE, 텐센트, 메이탄 등 주요 IT 기업들이 포함됨.

니오(NIO.US):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차량 원가 2만위안 증가

- 7/10 니오는 메모리 반도체와 탄산티륨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ES8의 차량당 원가가 2만위안(3,000USD) 증가했다고 밝힘. 니오는 공급망과 협력해 일부 비용을 흡수하고 자체 마진으로 부담해 판매가는 최대한 오래 유지할 계획. 또한, 경영진은 5월 중국 48개 도시에서 BMW·벤츠·아우디를 판매량과 평균판매가격(ASP)에서 앞질렀다고 밝힘. 니오 ES8 구매자의 68% 이상이 BMW·벤츠·아우디·포르쉐 고객으로부터 유입됐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AI/테크

즈푸AI(2513.HK): 업사이드 제한적이라는 전망에 급락

- 7/10 골드만삭스가 신규 커버리지 개시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중립, 목표주가 1,880홍콩달러를 제시하며 7/10 주가는 -19.3% 급락. 골드만삭스는 GLM-5.2의 기술 경쟁력과 A+H 이중 상장의 전략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며 7/8 첫 락업 해제 이후 수급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 현재 주가가 골드만삭스 목표가 대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이 급락의 직접 원인.
- 7/9 홍콩거래소 공시를 통해 최대 1,978만주 신규 H주를 주당 1,588홍콩달러(전일 종가 1,825홍콩달러 대비 -13.0% 할인)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 최대 조달 규모 약 314.1억 홍콩달러(약 272억위안). 7/13 실제 배정 완료를 공시하며 올해 홍콩 증시 테크 기업 단일 배정 모집 규모 신기록 달성. 조달 자금은 기초 모델 R&D·AI 칩 자체 개발·연산력 인프라 확충·전략적 M&A 및 운전 자금 보충에 투입 예정.

텐센트(0700.HK): 징둥 및 메이탄과 AI 에이전트 연동 테스트 착수

- 7/14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하 AI 어시스턴트 앱 위안바오가 징둥(9618.HK) AI 에이전트와의 기능 연동을 추진 중이며, 메이탄(3690.HK) AI 에이전트 '샤오메이'와도 연동 테스트에 착수. 위안바오가 쇼핑, 배달, 물류까지 아우르는 슈퍼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첫 단계로 해석되며 7/15 텐센트 주가는 +3.9% 강세 마감.

바이트댄스(비상장): 자율주행 진출 탐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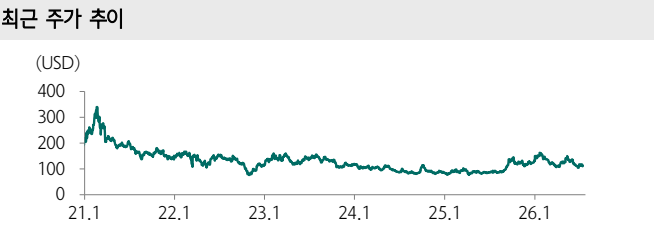
- 7/13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자율주행 영역 진출을 탐색 중이며, 현재 산하 Seed 사업부 주창 팀장의 World Model 개발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함. 진출 방향은 무인 물류 시나리오에 집중하며 화산엔진 자동차 산업 라인 산하로 배치될 예정. 현재 초기 준비 단계에 있으며 바이트댄스가 다수의 자율주행 선두 기업과 사업 논의를 진행했고 관련 인재 영입도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AI 대형 모델 프론티어 탐색 영역, 물리 AI 분야에서 다수의 초기 연구·탐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스마트 드라이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 부인.

미니맥스(0100.HK): 대규모 증자 및 CB 발행에 희석 우려 부각

- 7/9 미니맥스가 공시한 2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배정(배정 규모: 총 발행주식의 약 25%) 및 전환사채(CB) 발행 계획에 7/10 주가는 -9.7% 급락. 신주 발행가가 전일 종가 대비 9.9% 할인 적용된 점이 즉각적인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조달 자금의 약 80%를 AI 인프라·모델 R&D에 투입 예정. 락업 해제 충격에 곧바로 대규모 추가 희석이 겹치며 주가는 약세를 시현.
- 7/11 JP모건 '중립', 7/13中金공사 '매수' 의견에 이어 7/14 UBS·골드만삭스가 잇따라 '매수'를 제시하며 저가 매수세 유입. 골드만삭스(목표가 860홍콩달러)는 "M3 모델의 낮은 추론 단가와 자체 최적화 연산력 기반의 높은 마진 구조"를 강점으로 평가했으며, UBS는 "글로벌 멀티모달 AI 시장 내 경쟁력과 수익화 성장 여력"을 긍정 평가. 또한 7/14 WAIC 전일 자체 개발 희소 어텐션(MSA) 아키텍처로 백만 토큰 장문 처리 비용을 기존 대비 약 1/20로 절감했다는 기술 진전 공개도 투심 회복에 기여. 7/15 미니맥스 주가는 13.3% 상승 마감.

바이두

상장 국가
미국/홍콩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57.9



2Q25 실적 프리뷰: 검색광고 매출 부진과 AI 투자 확대에 실적 둔화 전망

- 7/13 애널리스트 대상 실적 프리뷰 컨퍼런스콜에서 바이두 경영진은 검색광고 매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프론티어 모델 경쟁력 강화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간 AI 관련 CAPEX를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2Q26 GPU 퍼블릭 클라우드의 세 자릿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도 기존 검색광고 매출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반기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그룹 전반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부담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
- 컨퍼런스 콜 이후 모건스탠리는 검색광고 부진과 하반기 AI 투자 확대를 반영해 2026~2027년 Baidu Core 매출액 전망치를 각각 3%, 영업이익 전망치를 11~12% 하향 조정. 2Q26 Baidu Core 매출액은 253억위안(YoY -4%), 광고 매출액은 130억위안(YoY -18.5%)으로 예상한 반면, AI Cloud 인프라 매출액은 76억위안(YoY +56%)으로 전망. 다만 AI 투자 확대에 따라 Non-GAAP 영업이익은 37억위안(YoY -15%)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ADR 목표주가를 140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하고 ‘중립’ 의견을 유지. BofA는 180달러에서 165달러, Barclays는 128달러에서 124달러로, UBS는 홍콩 주식 목표주가를 175홍콩달러에서 165홍콩달러로 하향 조정. 수익성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7/14 바이두 홍콩 주가는 7.3% 하락 마감.

로보틱스

바이트댄스: 자율주행 사업 진출 검토

- 7/13 바이트댄스가 자율주행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 관련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브랜드 불케이노엔진의 자동차 사업부가 담당하며,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과 사업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프로젝트 초기 준비 단계에 진입. 또한 바이트댄스는 자율주행 핵심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며 일부 기술 인력은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유니트리(비상장): 유니트리 로봇, 원격으로 돼지 담낭 절제술 수행 성공

- 7/10 미국 UCSD 연구진이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 돼지 담낭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 두 명의 외과 의사가 원격으로 조종했으며 보조 로봇은 내시경을 조작 및 조직 견인을 담당.

샤오펑(XPEV.US): 올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월 생산 Capa 1,000대

- 7/14 샤오펑은 올해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Iron의 월 생산 능력을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 우선 2027년 1분기 중국 전역의 매장에 Iron을 판매 보조 직원으로 배치한 뒤, 같은 해 해외 매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 Iron은 키 178cm, 무게 70kg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 또한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Turing AI 칩 3개를 적용해 총 2,250TOPS의 연산 성능을 제공하며, 2세대 VLA(Vision-Language-Action) 대규모 AI 모델을 기반으로 구동.
-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샤오펑은 1Q26 광저우에서 약 11만㎡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기지 건설에 착수. 해당 생산기지는 연구개발 검증부터 소량 시험 생산, 대량 양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샤오펑은 2025년 11월 AI Day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Iron을 처음 공개했으며, 자연스럽고 유연한 보행 성능을 선보여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음. 허샤오펑 CEO는 3월 실적발표에서 Iron이 2026년 말 양산에 돌입하고, 연말 기준 월 생산능력을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샤오펑의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Iron은 2027년 2분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2028년부터는 일반 가정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 한편 샤오펑의 올해 Physical AI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70억 위안(약 10억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LimX Dynamics(비상장): 기업가치 22억USD로 평가

- 7/14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LimX Dynamics는 Pre-IPO 투자 라운드에서 2억USD 조달, 기업가치 22억USD로 평가. 이번 투자는 IDG캐피탈, Lens Technology 등이 참여했고 조달 자금은 대뇌·소뇌 융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 글로벌 시장 확장 등에 사용될 것. LimX Dynamics는 로봇 하드웨어, AI 인프라, 체화형 AI 운영체제(OS)를 아우르는 풀스택 기술 전략을 구축해왔으며, 올해 5월 휴머노이드 로봇 LimX Luna를 출시한 바 있음.

소비

ZTE(000063.SZ, 0763.HK): 바이트댄스와 AI 에이전트폰 공동 개발

- 7/9~10 산하 누비아 브랜드가 바이트댄스와 공동 개발한 글로벌 최초 AI 에이전트폰을 7/17~20 WAIC 2026(상하이 세계AI대회)에서 공개하고 동시 판매 개시 예정. 현재 8~10만대 현장 재고를 확보했으며 1차 총 물량은 50만대로 확인됨. 누비아 사업부는 "시장의 AI폰은 기능을 AI에 덧붙이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 제품은 AI 에이전트를 OS 시스템 레벨에 내장해 진정한 '완전 일체형 AI 에이전트폰' 경험을 구현했다"고 언급.

SHEIN(비상장): 홍콩 상장 본격화, 3분기 상장 가능성

- 7/10 중국 증감회 국제협력사가 SHEIN의 해외 상장 통지서를 공식 발표, 홍콩거래소 상장을 위한 최대 3억 4,161만주 발행 계획을 수리. 미국 IPO 시도(2021~2024년)와 런던 상장 무산에 이어 세 번째 상장 시도로, 이르면 3Q 홍콩 IPO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 목표 밸류에이션은 약 400억~500억달러로 2023년 조달 당시(660억달러), 2022년 최고점(1,000억달러)에서 크게 조정되었음.

중국중면(601888.SH, 1880.HK): 상반기 수익성 개선 확인

- 7/14 1H26 잠정 실적을 공시. 매출 275.9억위안(YoY -2.0%), 귀속 순이익 31.1억위안(YoY +19.5%) 기록, 각각 컨센서스 1.2%/1.8% 상회.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비용 효율화와 하이난 지역 채널 마진 개선으로 이익률이 빠르게 회복된 모습.

미니소(9896.HK): 자체 오리지널 IP 'YOYO' 매출 1억위안 돌파

- 7/13 미니소 첫 번째 자체 오리지널 IP 'YOYO'가 출시 1주년을 맞아 2026년 6월 중국 시장 월간 매출 1억위안을 돌파하며 7/15 +7.7% 강세 마감. YOYO는 2025년 6월 미니소가 독점 계약한 아티스트 YOYO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출시한 첫 번째 자체 오리지널 IP로,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매출 1억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1주년 시점에 월간 기준으로 1억위안을 달성하며 성장세가 뚜렷하게 가속화.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캠브리콘(688256.CH)	(3.8)	132.7	36.7	174.6	86.5	187.4	93.4	209.6	0.0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8.2)	161.7	17.8	52.4	41.3	75.3	55.9	83.9	0.0	2026-08-19
비렌테크(6082.HK)	(5.6)	-	1.9	127.6	258.1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6.0	-	(10.8)	169.5	121.9	적지	흑자	적지	(1.3)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7.3)	70.0	17.4	28.4	28.0	38.4	43.9	39.8	0.1	2026-08-25
AMEC(688012.CH)	(9.9)	105.6	13.1	33.5	34.2	60.8	42.0	113.9	0.0	2026-08-19
SMIC(0981.HK)	(4.2)	73.2	4.8	23.2	18.2	53.4	39.0	51.2	0.0	2026-08-07
JCET(600584.CH)	(8.6)	75.8	7.1	12.4	14.4	43.1	38.5	48.5	1.8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5.7)	83.0	23.0	36.4	47.0	59.8	50.1	63.0	(0.3)	2026-08-31
빅토리아언트(300476.CH)	1.8	29.5	29.6	72.9	72.0	108.8	78.9	86.2	(2.8)	2026-08-26
중지쉬창(300308.CH)	6.9	47.3	62.4	151.5	76.7	181.6	78.3	156.4	1.9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0)	21.3	30.8	63.1	33.2	74.1	32.9	70.9	0.0	2026-08-11
즈푸AI(2513.HK)	4.1	-	20.4	380.8	184.6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4.8	18.3	8.9	9.7	12.1	(10.8)	39.4	111.6	(2.3)	2026-08-28
텐센트(0700.HK)	3.0	13.6	19.3	10.0	9.5	6.3	9.8	26.9	(0.1)	2026-08-12
바이두(BIDU.US)	(5.1)	14.6	5.2	1.2	7.3	152.1	20.9	14.1	(6.6)	2026-08-20
레노버(0992.HK)	(2.5)	15.8	29.1	13.2	11.9	29.7	26.1	28.0	2.0	2026-08-13
샤오미(1810.HK)	0.1	19.7	10.0	4.5	17.4	(33.3)	34.3	(8.8)	(1.4)	2026-08-14
유비테크(9880.HK)	0.8	-	(4.8)	92.2	51.3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31
BYD(1211.HK)	2.4	17.1	14.8	13.8	9.9	22.1	27.7	30.2	0.0	2026-08-14
CATL(300750.CH/3750.HK)	7.0	17.8	25.3	44.1	21.2	33.4	23.1	40.7	0.3	2026-07-24
양광전력(300274.CH)	(5.1)	14.8	26.7	16.0	18.5	10.7	23.1	18.3	0.0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7.0)	22.5	17.0	32.3	26.8	59.8	38.8	52.1	0.0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1.9)	27.5	6.4	44.3	39.5	26.3	63.9	30.7	0.0	2026-08-14
중천과기(600522.CH)	(11.3)	19.6	17.4	23.6	15.6	154.2	42.7	147.1	0.0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4.8	29.9	23.5	31.8	29.5	34.8	37.3	33.8	(7.7)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6.0)	19.2	9.9	10.7	9.0	32.1	27.8	25.4	(0.6)	2026-08-28
평균	(1.7)	45.7	17.1	62.0	48.0	60.9	42.1	64.1	(0.6)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7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